

1927년7월5일 3면 4단

唯物史觀과 個人의 努力 (一)

日不生抄譯

이것은 쾰뵐의 著書 『칼 맑스의 理論的 體系』의 □□中 一篇을 抄譯한 것인데 맑스□의 歷史論을 宿命論이라는 □□의 □□의 □□를 □□하며 唯物史觀과 個人과의 關係를 論하는 何時에 眞正한 맑스學徒의 意見을 □□한 것이다. 故로 『唯物史觀은 □□한 宿命論』이라고 斷言하며 □□를 □□하는 評論家□까지 現出하는 今日에 잇서서 이것을 抄譯함이 決코 □□는 아닐까한다.

-抄譯者-

맑스의 唯物史觀이 가장 만히 □□되는 點의 하나는 歷史進行에 對한 個人의 □□이 如何하냐하는 것이다. 맑스派의 歷史論은 宿命論을 說하는 것임으로 歷史의 進行에 □□을 與하는 點으로는 個人行動의 □□를 □□치 아니한다는 任意로 造作한 事實을 □□하는 것이 或 種의 맑스批判家가 使用하는 □□□□이다. 그들이 明白하게 記述한 것이나 또는 隱然中에 推定한 것에 依하면 맑스는 歷史가 人間의 意志와는 無關係하게 人間의 智能을 左右하며 그들의 制度와 運命을 形成하는 바의 經濟的 原因이라는 □□에 依하여 推進되며 그래서 豫定된 進路를 □□해야 따라나는 自動□□의 一種과 如히 想像하고 또는 說明하였다. 이를 批判家 竝으면 맑스는 그 行爲로 歷史의 폐-지를 填充하고 잇는 人間이 스스로 行하며 또는 行할라하는 것에 關하여 무엇을 思考하며 무엇을 要求하였는가함은 □□도 □□치 안었다. 歷史의 進路는 豫定되어잇는 것이며 그리고 『經濟的 要素』는 이 豫定된 進路 上에 歷史의 □□을 끌어오는 動力이니 必然的으로 社會의 各員 個個히 或은 全員히 合同하여 可能한 □□內의 何如한 努力을 할지라도 歷史의 宿命論 進路에 何等 □□을 與할 수 업는 것이다. 故로 人間의 歷史의 進行을 □□ 促進 制限할야는 一切의 智的 努力을 □□하여야할 것이다. 그리고 運命이 彼 等에게 命한 必然을 기다릴 것이니 그들이 拱手하고 苦待하는 中에 이 必然은 『經濟的 要素』의 作用으로 □□된다. 맑스의 唯物史觀을 如斯히 解釋하고 그들은 此를 『經濟的 決定論』이라 □□한다.

要件대 그들은 맑스의 唯物史觀을 『經濟的 決定論』으로 □□하여 此를 宿命論이라고 解釋하며 그리하여 그들은 맑스主義를 모든 人間의 智力的 活動 特히 『理想主義的』活動을 全然無視한 것이라는 理由로 맑스說에 對하여 斷乎한 反對를 表한다. 勿論 맑스自身이나 맑스主義者가 任意로 想像한 그들의 宿命論에 □□됨이 업시 人間의 思想과 行動, 모든 方面에서 □□할 만한 智的 活動을 한 것은 容易히 證明할 수 잇는 바이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活動의 大部分이 想像할 수 잇는 限의 가장 『理想主義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此는 맑스主義者로서 不□底한 바이라는 非難을 바들 것이다. 그럼으로 吾人은 唯物史觀을 宿命論이라는 主張이 如何한 根據를 가졌는가 그리고 社會의 各員이 가지고 잇는 歷史를 形成하는 要素로서의 可能性과 制限은 唯物史觀에 依하여 果然 如何히 解釋되는 가를 究明할 必要가 있다.

優先 第一로 決定論에 對하여 論하자 맑스自身이 論述한 것 中에는 經濟的 決定論이라는 말을(이 境遇에 使用됨과 가튼 意味로) 그의 歷史觀에 適用할 만한 것이 絶對로 업다고 斷言하여도 無妨하며 此 用語나 或은 此 用語가 表示하는 思想이 그의 어느 著作 中에서일지라도 發見할 수 업슬 썬더러 이 思想은 그의 理論體系의 全 精神과는 全然 別物이다.